



## 하루 두번 브런치콘서트 일상에 쉼표를 더하세요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클래식, 국악, 발레, 재즈, 미술, 뮤지컬...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ACC 브런치콘서트'는 2016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공연이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무대로 지역민들의 일상에 쉼표를 더해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구·ACC재단)은 올해부터 브런치콘서트를 하루 2회 운영으로 확대한다. 기존 오전 1회로 진행하던 공연을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하루 두 차례로 늘리고, 프로그램 명칭도 'ACC 브런치콘서트 플러스'로 변경했다.

ACC재단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공연 횟수와 관객층을 동시에 넓힌다는 계획이다. 오전 공연은 기존 브런치콘서트 관객층을 유지하고, 저녁 공연은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 낮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관객을 겨냥한다. 음악과 해설이 결합된 기본 형식은 유지하되 토크 콘서트와 레저 콘서트 등 협상형 공연의 비중을 강화했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공연 종료 후 제공하던 다과 대신 인근 식당·카페와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공연 관람 이후의 동선을 지역 상권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관객의 경험을 공연장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브런치콘서트 플러스의 문을 여는 무대는 2월 25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는 '광주 솔로이스트×피아니스트 조재혁' 토크콘서트다. 섬세한 양상으로 사랑받아온 광주솔로이스트의 연주와 클래식의 결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조재혁의 해설이 어우러진 무대로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3월 25일에는 1995년 창단 이후 창작과 대중화를 이어온 서울발레시티가 '발레로의 초대'를 선보인다. 초기 궁정발레에서 낭만주의, 고전주의 발레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대표 작품을 '해설이 있

ACC, 오전 1회서 하루 2회로 늘려  
'브런치콘서트 플러스' 명칭 변경

다음 달 조재혁 토크콘서트로 시작  
서울발레시티·김영하 작가 등  
시민들에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는 갈라' 형식으로 엮어, '지젤'과 '파키타' 등 발레  
사의 주요 장면과 감상 포인트를 함께 소개한다.

4월에는 문화과 클래식이 만난다. 29일 김영하  
작가가 출연하는 '작가의 음악'은 김 작가가 오랫  
동안 사랑해온 영화와 클래식을 매개로 삶과 예  
술,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토크 콘서트다.

음악칼럼니스트 국지연의 진행 아래 바이올리  
니스트 배건을 비롯한 연주자들이 스크린 속 명장  
면을 수놓은 클래식 선율을 들려준다.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은 5월 27일  
무대에 오른다. 'Lost Pieces'를 주제로 새 앨범  
과 음악 인생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연주를 함께  
선보인다. 변화무쌍한 음색과 독창적인 표현력으  
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온 나윤선의 목소리를 브  
런치콘서트 무대에서 가까이 만날 수 있다.

6월 24일에는 국악인이자 트로트 가수 신승태  
의 경기민요 레저 콘서트가 열린다. 국악 타악 연  
주자로 출발해 경기민요와 밴드 '씽씽', 트로트 무  
대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온 신승태가 민요의 특징  
과 매력을 이야기와 시연으로 풀어내며, 민요가  
오늘의 음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하반기에는 인문·미술·클래식이 결합된 협상형  
공연을 예상하고 있다. 9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에서 열리는 '한국 현대미술 100주년' 토크 콘서트  
가 예상된다. 10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 현대미술 100주년' 토크 콘서트가 예상된다.

공연이 이어진다. 7월 이창용 도슨트의 '그리스 로  
마 신화, 클래식을 만나다'를 시작으로, 8월에는  
고영열·고아라·재즈밴드 프렐류드가 함께하는 '소  
리, 재즈와 슴하다'가 무대에 오른다. 9월에는 메  
조소프라노 지나 오가 오페라 속 여성 인물의 서사  
를 중심으로 바로크부터 낭만주의까지의 주요 레  
퍼토리를 소개하는 레저 콘서트 '오페라: 바로크  
에서 낭만까지'를 선보인다. 이어 10월에는 크로  
스오버 그룹 포르테나가 '기적의 하모니'로 관객  
과 만나고, 11월에는 이서준 도슨트의 '미술관으  
로 간 클래식: 프랑스'가 프랑스 미술사와 클래식  
음악을 함께 풀어낸다.

마무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뮤지컬 무대가  
장식한다. 12월 23일 열리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갈라 콘서트, 앙코르'에는 뮤지컬 배우 리사와 김성  
식, JK밴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뮤지컬 명곡과 크  
리스마스 캐럴로 연말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총 11회 공연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연간  
패키지 티켓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  
다. 오전 공연 50석, 저녁 공연 50석 한정 수량으로  
로 선착순 판매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구 ACC재단 사장은 "공연 횟수와 구성을  
확장해 더 많은 관객이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했  
다"며 "낮과 저녁, 서로 다른 시간대의 무대로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재단 제공〉

서울발레시티 '라 비방디에르'의 한 장면.



김영하 작가



문화의숲도서관에서 열린 '책 문화 DAY' 지난 체험 프로그램 모습.

〈문화의숲도서관 제공〉

## 체험 공방 변신 '광주문화의숲도서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가족 지갑 만들기 등 총 12회

광주문화의숲도서관이 올 해 매달 다른 주 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문화의숲도서관은 올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책 문화 DAY-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체험 공방을 연다. 문화 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연계해, 도서관을 만들고 배우는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도서 2배 대출 서비스와 함께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28일 가족공예 카드지갑 만들기, 3월에는 석고 페이스트 방향제 만들기, 4월에는 원예테라피 카

네이션 화분 만들기가 진행된다. 이어 5월 자개 씬 깨져 만들기, 6월 라탄공예 연필꽂이 만들기 등 매 달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매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프로그램별로 소정의 재료비가 발생한다.

도서관은 연말까지 총 12회에 걸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과 관심사를 아우르는 생활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서관 이도영 담당은 "매달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주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숙한 문화 공간으로 느끼게 되길 바란다"며 "독서와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문화예술단체 활동 공간 '문화 플랫폼'으로

순천문화재단 다음달 2~9일 7인 이상 문화예술단체 모집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임차 공간'이 아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우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순천문화재단(재단)은 오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2026 순천문화예술공간 플랫폼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단체의 공간을 장작과 교류, 시민 공유가 이뤄지는 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로 최소 구성원 7인 이상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여 가능하다. 재단은 20팀 내외를 선발해 단체당 1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최장 9개월 동안 순수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순천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공간의 유지 여부보다 공간을 활용한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교류, 시민 공개 활동 등 실제 운영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예술인 간 협업과 지역 협력 가능성도 주요 평가 요소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공간이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예술활동이 축적되고 시민과 공유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규모보다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중심으로 많은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http://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